

이렇게 기도하라! - 6. 용서해라

마태복음 6장 9-13절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로 앞의 절을 이해해야 다음 절이 뜻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때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며,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목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다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영혼은 용서 받음에서 그치지 않고 용서함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죄는 매일 쌓이는 빛과 같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해도, 그 용서를 매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책감으로 인해 한 없이 우울해질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으나 사함 받은 기쁨을 곧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 죄를 마음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이 기도는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치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아니 이것이 반복되면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용서’와 ‘건강한 영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며 점점 시들어가는 영혼을 경험합니다.

늘 ‘누구 때문에’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에 보니, 아주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줄 모르는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와 관대함, 공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J. D. 그리어 [기도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는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부분의 가장 심오한 뜻은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가, 죄를 지은 죄인이요 가해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한 ‘자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영혼의 부요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용서”아닌가요? 사랑하라! 아니면 용서하라! 왜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그 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과 용서만큼 이기적인 것이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용서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 감정이죠.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해 아프고, 그래서 받은 상처를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용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여하를 떠나서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상처를 끝까지 지고가야 하기 때문이죠.

용서가 이기적인 것은 용서하는 순간 우리들이 더 이상 그 상처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우리가 멋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운에서 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남자를 지극히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교인들과 관계를 잘 못하는 목회자들은 역시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양해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친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잘못된 일들을 곱씹지 말고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뺄어버진 우리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한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 어딘가에 부딪쳐 ‘멍’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곳이 자꾸 신경이 쓰이죠. 누군가 건드리면 아프죠. 그래서 예민해 집니다.

용서는 “정서적인 멍”을 치료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았다.

아예 남자를 믿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탓에 작은 일에도 쉬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다행히 그녀는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서른여섯 살에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당황했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녀가 말했다.

“아빠, 단 하루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독을 품고 살 수 없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래요. 저한테 잘못하신 거 다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날 아버지 집을 나설 때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셋이나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업에서도 꽤 성공한 그녀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말한다. 상처를 털어버리자 회복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은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BTD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논리적인 사건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전후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이 두 가지의 용서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뭔가 불완전, 아니 진정한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

조이서 마이어의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초신자일 때에 매일 저녁 하나님께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용서를 주고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누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권리는 우리가 그 용서를 알기에 용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주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족 외에는 어떤 곳에도 이런 풍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주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서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빗 탕감의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아무런 단서를 달지 마십시오. 용서에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용서의 주간을 정하고 용서의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용서 해주는 어느 아프리카 부족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김장환 큐티365/나침반출판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므로 우리의 짐을 털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용서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남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뛰어왔다.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누이동생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아니예요. 재가 먼저 시작했어요."

오빠도 큰소리로 말했다.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손을 잡고 이렇게 달랬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단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는가, 누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점이란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원어로 보면 ‘죄’를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진 빚과 같은 것입니다.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은혜로 탕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받아야 할 빚들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용서받은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용서 했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전, 용서는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용서는 내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갇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의 아픈, 그리고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